

동 정

제일조합 총회 격려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2월17일 열린 제일인쇄사업조합 총회에 참석, 격려사를 했다.

‘후원의 날’ 행사



배기선 국회문화관광위원회장은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후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자서전 출간



유기정 (주)삼화인쇄회장은 최근 ‘나의 꿈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는 표제의 자서전을 발간했다.

‘21세기 ...’ 출판기념회



박문석 중앙대 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는 최근 문화산업평론집 ‘21세기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를 펴내고 지난 1월31일 전북 남원시 향교동 자유빌딩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독서지도교사 세미나



김낙준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과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독서대상 교사부문 수상자 및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지도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3년도 베스트셀러 발표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최근 2003년도 베스트셀러 30종을 선정, 발표했다. 1위는 열린책들에서 발행한 ‘나무’가 차지했다.

매경TV 인쇄역사문화관 촬영



매경TV는 지난 1월30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26 인쇄문화회관 5층 전관에 조성된 인쇄역사문화관을 촬영했다. 매경TV는 이날 문화관에 전시된 우리나라 활자발달사와 특이활자, 직지활자 등을 2시간여 동안 자세하게 촬영했다. 여기서 촬영된 분은 공익프로그램에 1년간 방영될 예정이다.

고인쇄연구 큰 업적 윤병태 교수 별세



우리나라 고인쇄문화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윤병태 전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1월23일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 윤병태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에서 서지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경북대와 충남대 등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서지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그동안 ‘조선후기의 활자와 책’ 등 수십 권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고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조성한 인쇄역사문화관과 청주인쇄출판박람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고 윤병태 교수는 우리나라 목활자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상출판문화상 시상식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주)두산이 후원한 제44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달 29일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저술 부문에 ‘간다라 미술’ (사계절 발행)을 쓴 이주형 서울대 교수를 대신해 부인 서동연씨와 ‘현산어보를 찾아서’ (전5권·청어람미디어 발행)를 쓴 이태원 서울 세화고 교사, 번역 부문에서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이항, 기대승 지음·소나무 발행)를 옮긴 김영두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가 각각 상금 500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권경현 교보문고 사장, 최태경 두산동아 사장, 정상우 YES24 대표,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도정일(경희대) 이동철(용인대) 교수 등 문화·출판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자출판물 7월부터 부가세 면세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출판(e-Book)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 면수중 70/10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필하여 지난 1월26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중 전자출판물 면세 관련 개정 내용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고시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서 인쇄물 표준화 작업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인쇄, 출판, 옥외광고물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4백여개 서비스 문화 레저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요 표준화대상은 옥외광고물 보안 화장(火葬) 출판 인쇄 영상 게임 물류 등이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간판크기 시각효과 안전성 부착강도 등을 표준화해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강제규정을 정할 때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표지판 화장실표지 노약자표지 등 운영주체별로 조금씩 다른 표지판의 시각효과를 분석해 표준화하기로 했다. 문화분야에서는 출판 인쇄 영상 게임 등의 표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인쇄물시장 개척단 파견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인쇄물수출진흥협의회(회장 이국홍)는 오는 3월26일부터 4월3일까지 인쇄물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번 시장개척 대상도시는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이다.

인쇄연합회에서 현지 무역관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바이어 알선 등은 현지 무역관에서 담당하며 여행경비 등 기타 비용은 본인부담이다. 문의 02-335-6161

국내 서점 3589개 출판사의 19% 불과

국내 서점 수는 3589개로 전체 출판사 수의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전용면적은 32.9평으로 일본서점 평균치(81평)의 40%에 그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는 조합에 등록된 전국의 서점을 대상으로 집계한 '2004 한국서점편람'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내 서점의 전용면적을 처음 집계한 이번 조사에서 전용면적 30평미만인 서점은 73.8%, 20평 미만의 소규모 서점은 56.2%로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500평 이상의 대형 서점은 20개에 그쳤다. 국내 서점의 전체면적은 총 11만8243평으로, 축구 전용경기장(약 2159.8평) 54.7개에 해당됐다. 서점 분포를 보면 대도시와 지방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서점(547개)과 6개 광역시의 서점은 모두 1977개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한국콘텐츠출판학회 창립총회

콘텐츠출판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한국콘텐츠출판학회가 지난 4일 발기 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회장에 이기성(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교수, 부회장에 이창경(신구대학) 교수와 박영실(한양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총무이사에는 고경대(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홍보이사에는 손애경(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가 임명되었다. 감사에는 김경수(동원대학) 교수가 선출되었다. 한국콘텐츠출판학회에 참여하는 학교는 계원조형예술대학, 신구대학, 동원대학, 한양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중부대학교,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등이다.



동 정

산자부장관 초청강연회 참석



곽득룡 인쇄연합회 회장은 지난 2월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3빌딩에서 개최한 '산자부장관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정기이사회 개최



고수근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30분 인쇄정보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기자 채용박람회



이심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지난 2월29일 여의도 잡지회관에서 취재편집기자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여인협 회장 취임



이연지 흥일문화인쇄사회 회장은 최근 인쇄여성경제인협의회의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서점편람 발간



이창연 한국서점연합회 회장은 최근 512쪽 분량의 '2004 한국서점편람'을 발간했다.

명예경영학 박사



정광훈 정문정보사장은 지난달 21일 동신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용교 포장인상 시상식

한용교 전 포장협회장은 지난 2월 25일 팔레스호텔에서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동정

고인쇄박물관 개관 12주년



최창호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은 오는 3월 17일 박물관 개관 12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출판단체에 출력센터



이창래 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의 출판단체에 출력센터를 개설했다.

2004년 정기총회 개최



전덕수 한국제책조합이 사장은 2월25일 오전 11시 하림각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진피앤씨 특허취득



이수영 한진피앤씨 대표이사는 최근 '부직포 합지 압연 통기성필름과 그 제조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서울조합 축구회 회장

최원영 영신정보시스템 사장은 최근 서울인쇄정보조합 축구회 회장에 선임됐다.

라벨가격표 마련

김진배 한국라벨정보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라벨 표준인쇄가격표를 제정해 회원사들이 사 용키로 결의했다.

책박물관 건립 추진

여승구 화봉문고 대표는 올 하반기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책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여사장은 10만 여권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다.

상업인쇄부회 신년 간사회의 개최



서울인쇄정보조합 상업인쇄부회(간사장 이재환)는 지난 1월27일 세종호텔에서 신년 간사회의 및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 상업인쇄부회 활동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한편 클린사업장 지원자금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됐다.

이재환 간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이면서도 식사나 하고 끝나는 간사회의가 아니라 인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관련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겠다"면서 "상업인쇄부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울조합 장학금 전달식 가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고수곤)은 지난 1월 19일 서울시 중구 쌍림동에 위치한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2003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금 수혜자 및 가족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

서는 대일인쇄소 강덕준 부장의 자녀인 강상원(명덕고) 외 6명의 고등학생과 영신종합인쇄공사 강은석 대리의 자녀인 강민정(영서중)양 외 7명의 중학생 등 총 15명에게 소정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고수곤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쇄문화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야말로 진정한 인쇄문화인이며, 여러분들 또한 인쇄문화인의 한 가족임을 가슴깊이 꼭 간직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인쇄노조 풍물패 지신밟기 행사



전국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의 풍물패 '함지박'은 지난 1월 31일 명보극장 일대와 중구인쇄업체 밀집 지역에서 '인쇄골이 춤추는 대보름' 행사를 가졌다.

12시 30분 노조 사무실 앞 출발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서 풍물패 일행들은 명보극장 일대에서 판굿과 고사를 지낸 후, 인쇄골목 곳곳을 돌며 업체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가졌다. 풍물패 설립이래 매년 진행되던 지신밟기 행사는 최근 3년 동안 경기불황을 이유로 행해지지 않았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정례화 될 예정이다.

‘직지의 날’ 기념 세계기록유산 워크숍

청주시가 한국과 독일의 우수한 DB화 기술을 아태지역 기록유산 전문가 회의에 알리고 청주를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제2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보호훈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기록유산 워크숍은 1억1천만원을 들여 9월4일 ‘직지의 날’ 행사에 맞춰 1주일간 ‘기록유산의 디지털화와 보존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본부 ‘아비드’ 기록유산담당관을 비롯해 아태지역 기록유산보존 전문가 및 행정가 16개국 30여명을 초청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세계기록유산 관련 석학들이 참여해 각국의 기록유산물에 대한 보존과 복원 기법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벌이고 또 ‘직지’와 ‘구텐베르크성서’ 디지털화의 기술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기록유산 워크숍을 통해 국제기록유산 전문가들에게 ‘직지’와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청주를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 훈련센터를 우리시에 유치하려는 야심찬 의욕을 갖고 있다.

‘직지축제’ 발전방향 토론회

직지포럼(대표 강태재)은 지난 1월29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직지축제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지포럼은 지난 9월에 개최된 2003 청주직지축제 결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김현기 주성대 교수가 발제자를 맡고 황재봉 시의원과 이동주 청주시 TF팀장, 박종관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금성출판사 ‘훈민정음’ 발간

금성출판사(대표 김인호)는 신상품으로 새학기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출판업계를 주름잡던 전통을 바탕으로 중사전 규모의 국어사전 ‘훈민정음’을 발간했다. 총 11만 5000여 어휘를 실고 있는 이 사전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나온 어휘빈도 조사자료를 비롯,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한 어휘조사 등을 통해 중사전 규모 내에서 최대의 어휘정보를 담고있다.

특히 이 사전은 현대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표준어, 속어, 은어, 비어, 특수 집단어 등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현대의 언중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사전을 표방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블로그’, ‘보톡스’, ‘얼짱’, ‘짜퐁’, ‘기러기야빠’, ‘마초’, ‘로드맵’, ‘꽃미남’ 등이 대표적인 사례. 더불어 사용빈도가 높은 북한어 1천여개를 남한어로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권말부록도 함께 수록했다.

문화산업분야 인턴사원 2240명 모집

문화관광부가 청년실업 해소 대책의 하나로 올해 문화산업분야의 인턴사원 2240명을 새롭게 채용한다. 이르면 3월부터 채용될 인턴사원이 일할 분야는 광고 60명, 영화 170명, 애니메이션 250명, 게임 400명, 음악제작 50명, 출판 100명, 문화의 집 100명, 관광호텔 500명, 중국인 관광통역안내원 100명,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50명 등 문화산업, 관광, 청소년시설 등에 걸쳐 있다.

인턴사원의 채용기간은 6~10개월 정도이고 급여는 월 60만원 수준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청소년기금에서 128억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동 정

재경 홍성고 총동창회장

장현수 성문인쇄사 사장은 최근 재경 홍성고등학교 총 동창회장에 선임됐다.

화 속

장치원 사장

(주)민성디앤피 장치원 사장이 지난 1월31일 월드컵컨벤션웨딩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이승박사장 차녀

삼일문화정보(주) 이승박 사장의 차녀 주희양이 지난 2월7일 한빛웨딩프라자에서 화축을 밝혔다.

고 희 연

홍순영회장

홍순영 일신인쇄 회장의 고희연이 지난 2월 6일 롯데호텔에서 가족과 인쇄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차의송사장 모친

차의송 한국필름 사장의 모친 고희연이 지난 2월13일 오후 6시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부 음

이정일회장 모친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의 모친이 지난 2월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남중현사장 빙모

남중현 필경사인쇄정보(주) 대표이사의 빙모가 2월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노기섭사장 부친

금성전기 노기섭 사장의 부친이 1월 1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변경

■ 신광프린테크로

서울시 중구 인현동 소재 삼익(대표 박명응)은 최근 상호를 신광프린테크로 변경했다.

■ 탑월드칼라프린팅으로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의 무진기획 정판사(대표 주복실)는 최근 상호를 탑월드칼라프린팅으로 변경했다.

■ 현대A.D.P로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소재의 현대 기획인쇄사(대표 위성진)는 최근 상호를 현대A.D.P로 변경했다.

■ 삼우기획인쇄로

서울시 중구 인현동의 삼우아트인쇄(대표 김병일)는 최근 상호를 삼우기획 인쇄로 변경했다.

이전

■ 제일인쇄사

제일인쇄사(대표 이학모)는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5가 20-47로 이전했다.

■ (주)엠지알코리아

(주)엠지알코리아(대표이사 최판곤)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0-10으로 이전했다.

■ 세광제록스

세광제록스(대표 이광섭)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번지로 이전했다.

■ (주)우진코티니

(주)우진코티니(대표이사 김용범)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8-4로 이전했다.

인쇄문화협회 정기이사회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 인쇄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2003년도 결산서 및 사업보고와 2004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 상정의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민재기 회장은 “지난해에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미국 경기도 좋아지고 국내경기도 회복된다는 전망이 있으니 우리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갑신년을 열어 가자”고 말했다.

제지업계 “총선특수 없다”

제지업체들이 선거법 강화와 재고 때문에 4월 총선특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를 비롯한 제지업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인쇄물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공장가동률을 유지하는 등 총선 대책을 별도로 마련치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예상되는 수요는 월 평균 수준의 10%인 1~2만톤에 불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적정 재고의 절반을 밀돌고 있다. 한솔제지는 현재 93% 수준인 공장가동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재고분인 2만톤의 인쇄 용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신무림제지와 한국제지도 평소 수준의 공장가동률을 유지하며 비축 재고를 갖고 총선 수요에 대처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관리법 강화로 인쇄물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상 선거용 수요가 예년의 절반 수준인 1~2만 톤에 불과해 과거처럼 제지업체들이 선거특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문의원 직지상표권 기부

청주시는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약칭인 ‘직지’로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김현문(45) 시의원이 자신 소유의 상표권을 시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3월 17일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 12주년 기념식에 맞춰 4건 34종의 직지상표권을 기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1999년 4월 2건 20종의 상표권을 기부했다.

인쇄 및 관련업 신설법인

△드림넥스트(이희정, 인쇄관련 디자인 제조) 서초구 방배본동 763-25 1층 △리얼그래피(천명희, 인쇄·지기가공) 마포구 용강동 494-26 △휴먼프린팅(이승환, 인쇄) 중구 인현동2가 192-20 정암플라자 302호 △스카이바스(조중규, 상업인쇄) 마포구 동교동 200-21 원엔빌딩 △스텝지피(오금수, 인쇄) 중구 필동 2가 124-6 △청우도탈컴(이성근, 인쇄) 중구 을지로3가 315-9 △이모션덕유(김재택, 인쇄) 중구 오장동 14-10 △지앤비프린팅(라인철, 인쇄) 강남구 대치동 968-1 △서원씨씨앤디(원영식, 인쇄) 성동구 성수2가3동 277-168 △두독스(김구원, 포토숍·디지털출력) 서초구 잠원동 10-36 1층 △동남문화(김학인, 인쇄) 성동구 성수1가2동 13-160 △아트정글(강동환, 인쇄) 성동구 성수2가3동 277-7 제일인쇄빌딩B105호



專業과 轉業사이

#사례 1

“73년부터 78년까지 인쇄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에 계속 투자하셨나요?

“아뇨, 시설확장도 했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요즘은 어떠신가요?

“부동산 덕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쇄로는 돈 벌기 어려워요.”

2세가 인쇄사에 나와있는 35년 인쇄업을 경영한 한 인쇄인의 말이다.

#사례 2

“공장부지 외에는 땅 한평 사지 않고 오로지 시설현대화와 공장 신축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탄탄한 기업을 운영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인쇄업에 자신감을 잃어 갑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게 되고요, 여건

상 인쇄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오히려 불황을 내세워 협조를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비교적 좋은 거래처에 부가가치가 괜찮은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는 27년 경력의 인쇄인이 하는 호소이다.

#사례 3

“인쇄업을 그만 둘까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까지 들인 공도 많은데.

“인쇄업이 너무 치열해지고 매력도 잃었어요, 다른

분야에 손 대 보니까 기업활동도 쉽고 돈도 모을 수 있더군요.”

인쇄업계 전면에서 단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40대 후반 인쇄인의 푸념이다.

위에 든 세가지 사례는 좋고 나쁨이나 맞고 틀리고의 의미는 없다. 다만 인쇄인들의 현주소와 비슷한 공감대로 분류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은 인쇄업을 천직으로 알고 인쇄에 모든 것을 쏟는 ‘專業 인쇄인’이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볼때 부동산이외의 곳에 투자한 인쇄인 중에는 실패한 경우가 많다. 사실 인쇄업이 이곳저곳(?)에 신경을 써 가면서 경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다.

탄탄한 인쇄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외 길을 달리던 인쇄인들이 인쇄업이나 전문문제를

놓고 회의감에 젖는다면 한국의 인쇄문화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분명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날 우스갯소리로 회자된 말중에 ‘옆집 인쇄사가 망해야 내가 산다’는 험한 표현도 나돌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물론 인쇄업체의 난립이나 과도한 인쇄시설의 도입은 인쇄업계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곧 꽃도 피고 봄새도 울텐데 인쇄경기도 기지개를 켜고 도약의 창공을 날기를 학수고대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인쇄에 ‘올인’ 합시다. <오세익·편집주간>

탄탄한 인쇄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외 길을 달리던 인쇄인들이 인쇄업이나 전문문제를 놓고 회의감에 젖는다면 한국의 인쇄문화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분명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